

기획예산처가 '26.1.2일 “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책임 있고 투명한 재정운용”을 향해 출범합니다.

- 기획예산처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-

- ◆ '26.1.2일은 기획예산처가 **첫 출범하는 날**이자 **'26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**
- ◆ 기획예산처는 **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**로서 **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실현**하는 것이 핵심 소명
- ◆ **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**을 통한 **“초혁신경제 실현”** 및 **“따뜻한 공동체 구현”** 필요성 강조
- ◆ 이를 위해, 기획처는 ① **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**, ② **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이든 해내는 조직**, ③ **직원들의 자부심과 소속감이 샘솟는 조직**을 지향해야 함
- ◆ 기획처 직원에게는 ① **시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**, ② **“현장과 속도” 최우선**, ③ **광범위한 소통과 협업**, ④ **출범 직후 차질 없는 업무 수행**을 당부
- ◆ 무엇보다 **“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조직”**의 행동양식을 강조

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(장관 직무대행)은 1월 2일(금) 오전 10시 기획예산처 임시청사(KT&G세종타워 7층)에서 기획예산처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. 금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(이하 기획처) 실·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였다.

*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('26.1.2일)에 따라 기획예산처(국무총리 소속) 출범

임 차관은 “오늘은 **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**이자, **'26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**”이라고 하며, 그 어느 때보다 **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,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해**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. 이어서, 우리 경제·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,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**'퍼펙트 스톱'과 같은 복합위기**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. 특히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“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, 저출생·고령화, 탄소중립, 양극화, 지역소멸” 등의 문제를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하였다.

임 차관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**①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②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**을 통해 **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**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, 기획처가 **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**로서 **①초혁신경제 실현과 ②따뜻한 공동체 구현**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.

다음으로, 임 차관은 기획처가 지향해야 할 세 가지 조직상을 제시하였다. 첫째, **①“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도 기동력을 갖춘 민첩한 조직”**이다.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사고에 더해,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 해결하는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. 이를 위해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·분석적 업무 수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.

둘째, **②“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이든 해내는 조직”**이다. 임 차관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,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 특히, 기획처 직원들에게 **‘안 되는 이유’를 찾지 말고 ‘되는 방법’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**했다.

셋째, **③“직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”**이다. 임 차관은 기획처 직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긍지를 바탕으로, 전략기획과 재정운용 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임 차관은 기획처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유념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. 먼저, 기획처가 **①‘혁신의 용광로’로서 “더 쉽게, 더 빨리, 더 스마트하게” 일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**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 특히, AI 선도부처로서 업무 특화 AI 구축 등 부서별 맞춤형 AI 전환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, 간부들이 앞장서서 성과와 효율에 집중하는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둘째, ②**“현장과 속도”가 최우선**이라고 강조하였다. 기획처 전 구성원이 취약 계층, 지역,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, 수요자 맞춤형 대책을 통해 **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것**을 주문하였다. 아울러 예산 편성 이후 집행 과정의 병목 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,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책 효과가 국민께 즉각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.

셋째, 임 차관은 미래 설계 및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③**“광범위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것”**을 당부하였다. **국민, 기업, 정책수혜자, 시민사회, 국회 등을 정책의 동반자로 인식**하고,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. 아울러, **한국은행, 출연연 등 연구기관, 해외 싱크탱크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**하여 정책의 깊이와 품질을 한 차원 더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마지막으로 임 차관은 ④**조직개편 전후 단절 없는 업무 추진**을 통해 기획처 **조직의 단단함과 직원들의 저력**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며, 출범 첫날인 오늘부터 **“미리 준비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”**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.

※ 붙임: 기획예산처 조직도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류승수 (044-214-1410)
		담당자	서기관	김형은 (wlhot32@korea.kr)
			사무관	김성훈 (shkim49@korea.kr) 박제용 (jypark0601@korea.kr)



